

1만명 당 2~3명꼴이던 '자폐아'가 최근 1천명 당 1명의 확률로 나타나면서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최초의 자폐 관련 장애아를 위한 전문 교육학교가 건립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세워지는 '연꽃아이들'(원장 영인스님)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자폐관련 장애를 겪는 아이들에게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특수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대지 106평, 건평 80평 규모에 인지학습실, 국악을 이용한 소리체험실, 명상실, 컴퓨터 및 동영상 활용 언어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12월 말경 문을 열 예정이다.



영인스님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 10시간씩 손수 노동을 하고있다.

불교계 처음 연꽃아이들 자폐아학교

울산에 80평 규모...내달말 문 열여

인지학습실·소리체험실·명상실 등 갖춰

중증장애아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영인스님과 미국 유타주립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한 김정일(47)씨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이 학교의 모태는 자폐아 조기 교육센터인 '연꽃아이들'.

국인교사와 정상발달 또래 아이들이 함께 하는 리틀댄스치료교실, 부모의 기도와 명상을 강조하는 상담 등으로 울산뿐 아니라 전국에서 교육을 의뢰해 올 정도로 유명해졌다.

그러나 일대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폐아 교육의 특성상 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에 이르는 교육비 때문에 후원금에만 의존해 온 '연꽃아이들' 이받을 수 있는 혜택은 늘 제한되었다. 보다 많은 자폐아들에게

10명중 3명 무·타종교인 대학이상 고학력자 63%

사찰수련회 참가자 1만명 설문조사

올해 전국 사찰에서 실시된 여름 수련회 참석자 10명중 3명이 무종교이거나 타종교인이고,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고학력 참가자도 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이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사찰수련회 참석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수된 2,701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사찰수련회 참가자들은 종교를 묻는 질문에 593명(22.8%)이 무종교, 208명(8.0%)이 다른 종교라고 답했다. 이는 사찰 수련회가 포교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사찰수련회에 처음 참가했다고 답한 참석자가 1,936명으로 73%에 달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 참가동기를 묻는 질문에 938명(37.8%)이 '수행을 배우고 싶어서', 723명(29.2%)이 '불교에 대한 관심'

“도립공원 지정 승인권한 지방자치단체이양 반대”

국립공원제도개선시민위원회(공동대표 원택)는 13일 '단계별 가능성이 있는만큼 도립공원 지정 승인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이양은 10월 23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결정됐다.

남동우 기자

“오계가 미래사회 대인”

철우스님, 포럼서 주장

8일 한국일보 12층 대강당에서 열린 주간불교 창간 20주년 기념 '불교, 과연 인류미래의 대인인가' 포럼에서 철우스님(조계종 영산출신위원장)은 오계를 자비행, 보시행, 청정행, 진실된 언행, 지혜행 등 다섯 가지로 재해석한 후 '불자들이 기본적인 수행관과 교육관인 오계를 지켜야 불교가 사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럼은 철우스님(세울), 해주스님(동국대 교수, 경전), 박경준 교수(동국대 불교이념), 김광식 연구부장(대각사상연구원, 불교사) 등이 발제자로 나와 부문별로 불교가 인류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동우 기자

국보·보물중 64%가 불교문화재

불교관련 유형문화재 조계종이 51% 보유

우리나라 국보, 보물의 64%가 불교문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문화재 중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 목록> 이하 지정 목록에서 밝혀졌다.

<지정 목록>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현재 지정 문화재 8,003점 가운데 불교문화재는 2,632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와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제외한 유형문화재국



개신교재단인 고신대측이 동원한 굴삭기에 의해 미륵암 요사채와 화장실이 강제 철거됐다.

미륵암 요사채등 강제 철거

고신대 집달관 동원, 항의하던 불자 부상

해정스님, “도량파손 못보겠다” 분신시도

11일 부산시 영도구 고신대 내에 위치한 미륵암(주지 해정)의 요사채가 굴삭기에 의해 완전히 철거됐다. 개신교재단인 고신대측이 불법 절차에 따라 440여명의 집달관을 동원, 미륵암 강제 철거를 강행하면서 요사채와 화장실이 철거됐다. 비구니 금련회 스님들과 신도 등 150여명은 사찰 입구를 막고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집달관들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노보살 3명과 신도 문정순씨가 실신, 병원으로 옮겨졌다.

24시간 1000일 정진 정토회, 24일 회향식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진해온 정토회 1000일 정진이 24일 회향된다.

오전 10시 30분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회향식은 1부 대화마당, 2부 회향정진, 3부 회향기념식, 축하공연 순으로 이어진다.

남동우 기자

미륵암 요사채등 강제 철거

고신대 집달관 동원, 항의하던 불자 부상

해정스님, “도량파손 못보겠다” 분신시도

대한불교 삼론종

대승보살수제대법회

삼화상 : 전계아사리 전석봉 대화상
갈마아사리 이혜공 대화상
교수아사리 사혜광 대화상

칠중사 : 윤지은 대화상
류정봉 대화상
최청호 대화상
김진봉 대화상

정추봉 대화상
이인봉 대화상
이청봉 대화상

대 회 임 원

대 회 장 : 김혜승 총무원장 부대회장 : 이지해

봉행 위원장 : 김진봉 부위원장 : 이성철
운영 위원장 : 김지겸 부위원장 : 정법작
호법 위원장 : 김청담 부위원장 : 한법륜
법요 위원장 : 윤지은 부위원장 : 노혜원
지도 위원장 : 유지도 부위원장 : 김성하

추진 위원장 : 이도우 부위원장 : 이성각
준비 위원장 : 조지경 부위원장 : 황도희
동원 위원장 : 이허부 부위원장 : 조성휘
홍보 위원장 : 손혜각 부위원장 : 윤일선
예경 위원장 : 주도경 부위원장 : 송명산

◆ 일 시 : 불기 2546년 12월 1일(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화체육관
◆ 주 최 :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 ◆ 후 원 :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 02)433-9780

태극전사들이 먹는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오가피재매자 / 성광수씨
(주)수신토종오가피 대표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37억 아시아의 축제, 또 한번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선수들 곁에는 수신토종오가피가 있었습니다. (주)수신토종오가피는 대한체육회를 통해 한국 선수단의 체력증진을 위해 토종오가피 2000상자를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토종오가피는 6월 2002 한일월드컵 축구대회에서도 태극전사들이 복용했다. <동양일보 <월드컵>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과 아시아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는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심으시려면 서두르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재매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번 심어놓으면 수년만 수확이 가능한 토종오가피!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서두르십시오.

자료무료신청 (02)2201-3333